

준비 안된 지자체 중대재해법 시행 첫날 개정 요구하는 노동계

광주시·전남도 전남 조직 신설...부라부라 매뉴얼 만들기 구청들 "광주시 계획 따라 구체적 방안 마련" 안일한 대응 민노총 "기업·최고경영자 처벌 빠진 법 참으로 개탄스러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시행 첫날까지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노동계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업무 전담조직 설치를 끝낸 뒤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기초지자체나 관내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부터 시행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처벌 대상에 지자체장이나 지방공기업의 장 등이 포함되면서 지자체들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관리지침 보완 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초지자체들은 아직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권고했다. 지난해 11월 중앙·지방 정책 협의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안내하고 법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중대재해TF팀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으며, 전남도도 중대재해법 정착 총괄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TF)을 구성했다.

동구는 부구청장 중심의 총괄부서인 '중대재해TF팀'을 신설하고 ▲중대시민재해(주민안전담당관) ▲중대산업재해(일자리경제과) ▲사업장 내

재해 예방관리(행정지원과) 등 각 분야별로 부서를 지정했다. 또 중대재해팀을 중심으로 동구 소관 문화센터, 공립어린이집, 교량 등 중대재해시설 16곳을 관리하는 전담 부서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연간 안전계획 수립, 현황 점검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광산구도 전담팀을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서구·남구·북구는 광주시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광주시의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등 일부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매뉴얼 등을 미리 제작해 배포한 것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광주지역 지자체들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시행 첫날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와 "5인미만 적용 제외" 등의 조항 삭제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제2의 화정동(26일)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이어 어제(26일)도 광주시 도산동 건설현장에서 한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면서 "기업과 최고경영자들이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며 법 제정을 반대한 지난 1년의 행보는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와 법원의 엄정한 법 집행으로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의 처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경영자 단체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과 무력화 시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임인년 설 명절을 앞두고 27일 광주시 남구 애플B 유치원에서 전통한복을 차려입은 어린이들이 손하트를 하며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계림2구역 안전한 입주환경을 위해"

동구, TF팀 꾸려 정밀안전점검 등 만전

광주 동구는 '계림2구역 주택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안전한 입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림2구역 안전TF팀'을 꾸리고 지난 26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계림2구역 TF팀은 ▲아파트 정밀안전점검 추진 ▲입주예정자 요청사항 협의 ▲준공 후 입주 시 까지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동구청장과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 재개발조합장, 시공사 현장소장, 감리단장, 주무 부서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아파트 정밀안전점검 착수보고 및 입주예정자 요청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계림2구역은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공사 중지 상태이다.

이는 광주시의 '광주 내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공사현장에 대해 구조 안전 확보 후 공사 재개' 지시에 따른 것이다.

동구는 계림2구역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공사재개를 결정할 예정이며, 구조적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최근 발생한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로 인한 입주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아파트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TF팀을 구성하게 됐다"면서 "입주민이 마음 편히 입주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입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아이파크 구조 대원 힘내세요"

극락초 어린이들 손편지·쿠키 '오월 어머니집' 회원 찰밥 등 붕괴현장 응원의 손길 잇따라

설을 앞두고 아파트가 붕괴된 위험한 현장에서 실종자 찾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구조대원과 지원 인력, 실종자 가족들을 응원하는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광주시와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광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초등생들이 지난 25일 직접 만든 쿠키 상자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현장 구조대원들에게 전달했다. 어린이들은 실종자 수색 뉴스에서 본대로 구조대원이 탐지견을 인도하는 모습을 그려 넣고,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손편지도 동봉했다. <사진>

6학년 어린이는 "동생들과 친구들이 예쁘게 포장하였으니 맛있게 드시고, 우리를 위해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종자 제발 찾기 바라며..."라고 적었다.

'오월 어머니집' 회원들은 26일 찰밥을 들고 현장을 찾았다. 오월 어머니들은 즉석에서 찰밥과 김치·김으

로 주먹밥을 만들어 사고 수습 관계자들에게 전하고 피해자 가족들과도 슬픔을 나눴다.

지난 11일 붕괴 사고 발생이후 시민들의 기부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자원봉사 단체, 주민 자치회, 기업, 기관별로 저마다 간식을 보내 눈코 뜰 새 없는 현장 요원들의 허기를 채웠다. 광주대 학생들은 어묵과 라면, 문구 도매상가에서는 텀장갑, 제약회사에서는 비타민 등 각자의 물품을 내놓았다.

익명으로 보내온 피자 15판, 여학생의 정성이 담긴 컵라면 4상자, 대구 달성군 시민의 기부, 고려인 마을의 간식 등도 전달돼 구조대원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대·경북대 등 4개 대학 혁신기술 공유 업무 협약

네트워크 구축, 신기술 확산 협력

전남대학교와 부산대·경북대·한양대 등 4개 대학이 각자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을 공유해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광역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 4대 대학은 27일 부산대에서 '미래형 기술 혁신 공유대학 추진을 위한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해 각 대학이 연구개발한 검증된 신기술을 광역권으로 확산, 공유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대학은 광역권 중심의 기술 혁신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기술이전 및 창업, 기술사업화와 수익 창출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로 했다.

또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LINC+ 3.0)과 연계한 실질적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과 교류를 통해 인재육성과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광역권 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도 다하기로 했다.

전남대 이강래 부총장은 "광역권 대학의 융합기술이 신속하게 공급되고, 기업의 니즈가 반영될 수 있는 쌍방향 공유플랫폼이 구축됨으로써 산학협력이 더욱 촉진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해 지속 가능한 공유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방치된 묘지 70%(추정)



가족(30평 이하) 수목장

이제는 "수목장"입니다.

나를 위해, 후대를 위해, 환경을 위해 수목장으로~

- 1 매장,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저렴
- 2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으로 사용
- 3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

수목장 장점



개인 수목장 조성 과정



가족(30평 이하) 수목장

개인묘지 수목장 전환

가족묘, 문중묘 → 수목장 전환

저출산 고령화의 그늘
후손들에게 묘지 관리를 기대하거나 의지할 수 있을까요?

문의: 062-464-9190